

Abstrac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특별세션]

김은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북극항로 시대, 부산항의 도전과 과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지역의 해빙 가속화는 북극항로의 활성화를 불가피한 미래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항에 있어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이에 부산항은 단순한 하역 공간을 넘어, 선박의 입항부터 하역·보관·급유·수리·선용품 공급, 인력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부산항은 북극항로 시대에 글로벌 해양물류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